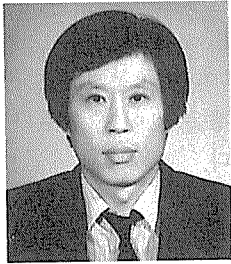


89年度 國內 電子工業의 需給動向



李 時 伯
本會 調査統計課

“ 가정용기기의 내수동향은 제품의 고급화, 대형화로 고가품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수입자유화 이후 우리 국민의 사치풍조, 외제선호 등으로 국산 가전제품의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오디오는 전년대비 41.8%의 비교적 안정된 신장세다. ”

1. 概 要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80년대에 年平均 30.2%의 高度成長을 해왔으나 지난 해에는 노사분규의 격심, 노동생산성을 능가한 임금인상, 원화의 급절상으로 輸出부진, 先進國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生産은 10.6%의 低成長과 輸出은 전년비 5.4% 한자리수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情報化 社會의 급진전, OA機器의 확산으로 內需시장의 활기에 힘입어 市販은 28.5%의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Set Maker의 輸出부진과 컬러TV, VTR 등 主宗品の 不振으로 國內 部品業界의 Local공급 저조로 Local은 마이너스 1.4% 成長하는 요인이 됐다. 輸入은 내구성 소비재의 증가로 전년비 8.7%로 輸出 輸出신장률을 초과했다.

지난해에는 저해요인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下半期 이후 노사분규의 원만한 타결 등으로 生産性이 회복돼 國民경제의 主産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한 셈이다.

2. 生産動向

지난 한해의 電子工業 生産은 19조 44억원으로 전년대비 10.6%의 저성장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情報化時代의 급속한 확산으로 産業用機器의 生産 호조로 4조 912억원, 22.6% 成長으로 우리나라 電子工業도 구조변화가 家庭用機器 위주에서 産業用機器 生産비중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電子部品은 半導體 輸出급증에 힘입어 8조 2,471억원에 16% 成長했으나 家庭用

표 1. 부문별 생산실적

部 門 別	단위 : 억 원		
	'88	'89	增減率 (%)
産業用機器	33,381	40,912	22.6
家庭用機器	67,237	66,660	△0.9
電子部品	71,153	82,471	15.9
電子工業 計	171,771	190,044	10.6

機器는 世界보급률 한계, 수입규제 강화, 內需 시장 침체 등으로 0.9%가 감소했다.

가. 産業用 機器

'89年의 産業用機器의 生産은 4조912억원으로 전년대비 22.6%의 비교적 높은 伸張을 했다. 通信機器의 國內수요를 중심으로 Computer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OA機器의 보급 확대, 초·중·고의 교육용 컴퓨터 교육과정 채택으로 16Bit XT기종 판매호조로 生産실적이 2자리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品目別로 살펴보면 단순기능의 電話機는 보급률 한계와 수출의 부진으로 生産量은 감소한 반면 다기능 고가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차량용 Mobile Phone의 國內수요 증가와 Portable型 Handy Phone의 수요가 급신장했다. 코드리스폰은 일반 소비자 선호로 326萬臺에 32%의 성장과 교환기는 대체 수요가 늘어나 PABX의 시분할식 교환기의 生産이 3,475억원에 전년비 29.2%의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사무자동화와 보급형 OA기기의 보급확대로 Fax 生産은 16萬臺에 전년비 260%로 급신장했다. 情報機器는 2조1,335억원 生産으로 20.3%增加했다. 이는 16Bit PC가 246萬臺 生産 호조와 HDD, Printer, CRT, Monitor 등 주변기기의 수요가 급신장했다.

나. 家庭用 機器

가정용기기는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부진과 國內 보급 한계로 점차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生産은 4조5,031억원에 전년비 0.9% 감소했다. 이는 國內보급의 한계와 ASEAN신흥공업국의 추격, 生産코스트 인상 등으로 주경쟁국인 일본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국제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 수출 둔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오디오기기는 1조6,937억원에 전년비 1.7%

감소했다. 이는 日本系 企業의 國內철수, 카스테레오의 수출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다. 콤팩트 스테레오는 저가형 보급품은 生産이 늘었으나 고가품은 수입품 선호에 밀려 生産이 저조했다. 칼라TV, VTR은 수출량 감소와 내수시장 보급한계로 生産이 전년수준을 보였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는 대형제품 生産은 늘었으나 수량은 감소했다. 전자렌지는 한국형 제품 출현으로 國內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출량 감소로 944萬臺 生産에 전년비 9.1%나 감소했다.

우리업계도 해외현지공장 生産강화 및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중소기업 협력사로 生産시설 이전이 활발히 진행돼 생활의 풍요와 편리성이 강조된 제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 電子部品

지난해의 전자부품 生産은 8조2,471억원에 전년비 15.9%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 주요 가전제품의 수출부진(C/TV, VTR, MWO)으로 Local 공급 부진, 재고누적으로 부품업계의 경영악화요인까지 발생했다.

부품전체생산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2조7,102억원에 전년비 48.3%의 고도성장을 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가격 하락으로 신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90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CRT는 중국시장으로의 공급중단, 분규로 인한 生産차질로 기존거래선 order 중단 등으로 3,323萬臺 生産에 前年比 4.2% 감소했다. 일반전자부품도 일부업체의 분규 장기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ASEAN으로 이전, Local供給 부진 등으로 전년 수준으로 성장했고, 산업용 전용부품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장세가 증가 추세이다.

특히 Chip化 현상이 모든 부품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국산화가 가속화 되고있다.

우리 업계도 國內생산의 메리트가 없는 제품

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ASEAN으로 생산시설이관 등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는 투자동향도 R&D투자보다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는데 생산성을 증가하는 임금상승, 분규 등에 대처해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쟁국인 日本에 비해 품질, 기술개발이 뒤져있는데 우리 업계도 R&D투자에 적극적으로 집중투자해서 국제경쟁력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겠다.

3. 輸出 動向

가. 産業用 機器

'89년은 달러貨에 대한 원貨 切上率이 급진전됐고 큰 폭의 임금인상이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작용, 국제경쟁력 상실로 Low-End 제품은 ASEAN 국가의 良質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日本企業의 海外현지공장 生産 강화로 우리 製品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당하였다.

국내적으로는 産業用機器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情報, 通信, 自動化, 부가가치통신망 등 전산업에의 파급효과가 Computer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의 産業用機器 輸出은 8.1%가 늘어난 35억弗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通信機器는 9억3,800만弗에 전년비 3%의 신장둔화 추세이다. 이는 電話機의 輸出부진에 큰 원인이 있다. 지난해에 급부상한 Fax는 OEM 輸出 증가로 1,600만弗 輸出했고 Key Phone는 美國의 輸入規制 강화로 1억2,600만弗로 전년비 12.7% 감소했다. 無線通信機器의 輸出은 코드리스폰의 好調에 힘입어 4억5,300만弗에 전년비 10.6% 성장하였다. 그동안 고성장했던 Computer 輸出은 20억弗로 전년비 8.6%의 소폭 증가했다. 16Bit PC는 전년 수준이고 32Bit PC가 전년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OEM공급에 의존한 우리업계는 主競爭國인 臺灣에 비해 뒤지고 있다. 臺灣은 정부차원의 집중투자와 주변기기의 강세로 世界市場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 제품도 PC, CRT

중심에서 Mini Computer의 개발과 워크스테이션, HDD, Printer 등의 주변기기 輸出에 주력해 다품종 소량주문에도 치중해 市場 多변화에 노력해야겠다. 신시장인 동구권 진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표 2. 부문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弗

구 분	1988	1989	증감률 (%)
전 자 공 업 계	15,715	16,562	105.4
산 업 용 기 기	3,230	3,491	108.1
유선통신기기	501	485	96.8
무선통신기기	409	453	110.8
전자응용기기	324	381	117.6
정 보 기 기	1,989	2,173	109.3
전 자 부 품	6,176	7,270	117.7
반 도 체	2,742	3,571	130.2
전 자 관	677	679	100.3
수 동 부 품	363	275	75.8
기 능 부 품	2,199	1,987	90.4
기 구 부 품	259	307	118.5
가 정 용 기 기	6,308	5,800	91.9
전 자 제 품	4,654	4,392	94.4
음 향 기 기	1,889	1,776	94.0
영 상 기 기	2,739	2,594	94.7
전 기 제 품	1,655	1,408	85.1

주) 사사오입 관계로 증감률은 本文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나. 家庭用 機器

선진국의 輸入規制 강화, 보급률 한계로 수요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EC지역의 덤핑제소로 對EC 가전제품 수출은 9억7,900만弗로 전년비 24.2% 감소와 對美輸出도 4.8% 감소했다. 또한 中國의 천안문사태 이후 TV, VTR 등 가전제품 수출이 중단된 반면, 동구권의 新市場이 급부상했다.

주요 品目別로 살펴보면 Audio가 17억7,600만弗로 6% 감소했다. Radio Cassette는 전년비 6.7%가 감소했는데 Car Audio는 CD내장형과 고급기종의 輸出이 늘고, 단순기능 제품은

채산성 악화로 경쟁력이 상실돼 가고 있다. Component Stereo는 약3억弗 수출로 전년비 16.5% 증가했다. 컬러TV는 0.5% 감소한 11억6,800만弗 수출에 그쳤다. 주市場인 美國市場의 재고누적, 가격경쟁력 약화, EC市場의 物量規制, ASEAN 신흥공업국의 맹렬한 추격 등으로 저가품은 메리트가 점차 사라지고 大型化·高機能化·AV對應化 제품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VTR도 세계보급률 둔화, Dumping규제 등으로 12억弗에 6.3% 감소했다. 반면에 캠코더 輸出이 늘고있다. 흑백TV도 매년 감소추세로 1억8,700만弗에 전년비 22.8% 감소했다. 電氣製品도 主宗品目인 전자렌지의 輸出부진으로 1억4,800만弗에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家電製品은 경쟁국인 日本製品과 비교해 품질은 뒤지고 價格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海外市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部品の 고밀도化, 對日輸入에 의존하고있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진전으로 가격경쟁력 회복과 海外現地工場의 生産 강화로 선진국 보호 무역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 국별 수출현황

(단위: 억弗, %)

국명	'88(실적)	증감률	'89(실적)	증감률
미국	6,005	29.2	6,542	9.0
일본	1,599	63.0	1,961	22.7
홍콩	1,315	110.9	886	△32.5
서독	817	33.5	768	△6.0
영국	718	33.2	562	△19.0
싱가폴	701	182.6	761	8.5
캐나다	450	35.7	297	10.8
프랑스	386	34.2	326	△15.6
화란	280	1.3	273	△2.2
이태리	261	32.6	215	△17.9
소계	12,533	42.8	12,591	0.5
전자제품계	15,715	45.0	16,562	5.4

다. 電子部品

部品 輸出은 반도체의 호조에 힘입어 72억7,

000만弗에 전년비 17.7%의 성장에 그쳤다. 그동안 美日 반도체 무역마찰로 호황을 맞았으나 메모리 IC 分野는 價格하락, 需要감소로 다소 둔화됐다. 반도체 IC는 34억6,000만弗 輸出에 30.2%의 꾸준한 증가추세고 TR 등 개별소자는 둔화추세다. 전자관은 中國輸出 중단과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 5억4,900만弗에 974만本 輸出에 그쳤다. 전년비 24.4% 감소로 대폭 축소되었다. Local공급도 가정용기기의 수출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일반電子部品은 완제품의 NEEDS化(輕簿短小化, 高機能化)가 가속화되고 SMT(Surface Mount Technology) 진전으로 Chip 部品 사용률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Chip 세라믹콘덴서, Chip 저항기 등의 신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성기 및 Coil류는 외국인투자 部品업체의 國內 철수, 투자대상을 ASEAN으로의 이전 등으로 전년 수준으로 증가했고 PCB는 가전제품의 輸出부진으로 Local공급이 저조했다. 世界수요도 産業用機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Multi layer PCB 직수출이 급증할 추세이다. 磁氣Tape는 우리 동종업체의 과당경쟁으로 海外市場에서 價格하락의 현상까지 초래했다. Audio Tape는 世界수요 감소로 전년비 6.5% 증가한 반면 Video Tape는 세계 VCR보급률 증가로 5억8,000만弗에 전년비

표 4. 10大 主종품목 수출실적

(단위: 백만弗, %)

구분	'88	'89	증감률
반도체	3,179	4,023	36.6
컴퓨터	1,878	2,042	8.7
오디오	1,889	1,776	△6.0
VTR	1,322	1,239	△6.3
C-TV	1,174	1,168	△0.5
전자렌지	843	815	△3.4
자기 Tape	684	801	17.2
음극선관	637	624	△2.0
전화기	341	391	14.7
B/W TV	243	187	△22.8
소계	11,663	13,067	12.0
전자제품계	15,715	16,562	5.4

22.5%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했다. 테크메카니즘은 日本계 企業의 철수 및 國內 기술부족으로 직수출과 Local공급이 두자리수 이하로 감소했다. Speaker는 中小 전문업체의 海外生産 이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 部品産業은 소재산업의 낙후로 對日 수입의존율이 높고 기술·품질 수준도 日本에 크게 뒤지고 日本의 ASEAN 신흥공업국으로의 현지공장이 전진기지화되어 추격해오고 있다.

4. 內需動向

'89년도의 國內市場은 5조1,306억원에 전년 대비 28.5%의 비교적 꾸준한 成長을 했다.

産業用機器는 교육용 컴퓨터의 家庭보급 확산, Fax, 복사기 등 OA機器의 보급형 新製品 출현으로 가격 하락, 급속한 情報化社會의 급진전과 通信機器의 휴대化로 Car Phone, Handy Phone, 페이져 등의 수요 급증으로 전년비 36.2% 고성장에 1조 1,191억원의 규모로 커졌다.

家庭用機器는 제품의 고급화·대형화로 고가품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수입자유화 이후 우리국민의 사치풍조, 외제선호 등으로 國產 가전제품의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오디오는 전년대비 41.8%의 비교적 안정된 신장세다. 이는 자동차 수요증가로 Car Stereo의 급신장과 CDP, DAD, Component Stereo의 보급형 제품이 청소년층의 선호와 가격인하 등으로 완

표 5. 부문별 내수동향

단위 : 10억원, %

구 분	1988	1989	증감률
전 자 공 업 계	39,918	51,306	28.5
산 업 용 기 기	11,822	16,849	42.6
유선통신기기	632	861	36.2
무선통신기기	113	111	△2.3
전자응용기기	109	148	35.6
정 보 기 기	328	565	72.4
전 자 부 품	718	849	18.3
반 도 체	90	155	71.2
수 동 부 품	173	186	8.0
기 구 부 품	148	150	1.3
기 능 부 품	229	294	28.3
가 정 용 기 기	2,092	2,596	24.1
음 향 기 기	327	463	41.8
영 상 기 기	592	677	14.4
기 타	127	201	58.2
전 기 제 품	1,046	1,256	20.1

※주 : Local 실적은 제외

만한 성장추세고 칼라TV는 보급률 한계로 수량면에서 전년비 11.0%가 감소했다. VTR은 TV 과의 방영으로 보급형 제품의 수요가 늘어 18만臺의 판매호조를 누렸다.

가정용 전기제품도 고급화·대형화 추세로 전년비 20.1% 신장했다. 룸에어컨은 노사분규로 생산차질, 주요부품인 컴프레서의 국산화 미개발과 주수입국인 日本제품이 적기공급이 안돼 국내공급과동 현상까지 초래했다. 냉장고는 수량이 전년비 5.5%가 줄었으나 금액은 11.1%가 늘었다.

